



진짜와 만날 수 있는 우주박물관 코스모아일 하쿠이



코스모 시어터(프로그램) 일본어만입니다.



컴퓨터그래픽 플래네타리움「HAKONIWAⅡ」에 의한 박력 있는 3차원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주왕복선(spaceshuttle)과 별하늘이 입체적으로 동형 천정 가득 투영됩니다. 제트 코스터에 탑승한 기분도 맛볼 수 있는 약 20분의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상품 셀렉트 숍



코스모아일 하쿠이·접수 카운터 옆에 있는 우주상품 셀렉트 숍. 우주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주식사를 추천합니다. 꼭 한번 시식해 보세요!
또한 여기에서만 손에 넣을 수 있는 프리미엄 우주상품이 가득합니다. 여행 선물로도 좋습니다!

SETI & UFO부스(미니 영화관)

SETI 서미트 부스

이 부스에서는 SETI(세티: 지구의 지적생명탐사) 활동에 관계하고 있는 과학자의 조사결과와 그 활동에 대한 의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UFO 서미트 부스

이 부스에서는 UFO현상의 탐사에 관계하고 있는 과학자의 연구성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6명의 과학자가 참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성과를 과학자 스스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포함하여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

	우주과학전시실	코스모 시어터	우주과학전시실 와 코스모 시어터
대인	500엔	500엔	900엔
초/중학생	250엔	300엔	450엔

코스모시아타는 일본어만입니다.

개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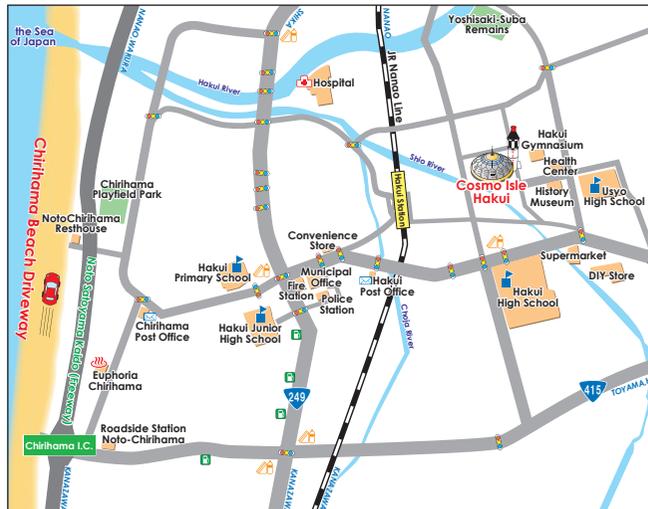
연중 8:30~17:00(입장은 16:30까지)

휴관일

매주 화요일

(경축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도시지도



코스모아일 하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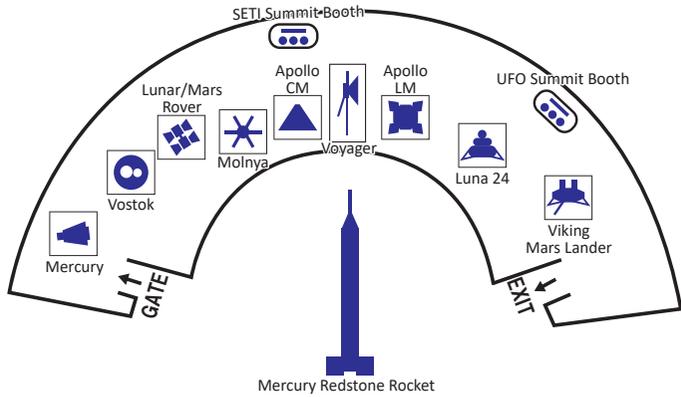
우925-0027 이시카와현 하쿠이시 츠루타마치 벤다 25
TEL:0767-22-9888 FAX:0767-22-1947
<http://www.hakuui.ne.jp/ufo/>

전시실 총별 안내

Exhibition Floor Information

이 전시실에서는 인류 최초의 우주개발에서 화성탐사활동의 역사까지 우주에서 활약한 실물이나 박물관 등급의 우주 기체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환경에 생명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부스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지구상이나 우주공간에서 목격되고 있는 UFO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설, 그리고 SETI(지구 밖 지적 생명체의 탐사활동)에 대한 연구자료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미니 영화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우주에서 고독한 존재일까요?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지닌 혹성지역을 「해비터블 존 Habitable Zone」 (생명 생존 가능 지역)이라 합니다. 이 해비터블 존이 우주 속에서 많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구뿐일까요? 안내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머큐리레드스톤 로켓(미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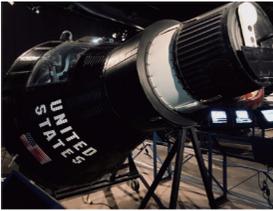
이 로켓은 「근대 로켓공학의 선조」라고 알려진 헤르만 오베르트(Hermann Oberth)의 제자인 폰 브라운(Werner von Braun)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1952년에 개발되었다. 미국 최초의 유인우주비행인 「머큐리계획」에서는 아틀라스 엔진이 닳았기 때문에 이 레드스톤이 발사로켓으로 사용되어, 2회의 탄도비행을 실시한 것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실물 로켓의 몸체입니다.

루나 로버(미국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루나 로버(월면차)는 아폴로 15호에 탑재된 월면차를 재현한 것으로, 지상주행이므로 금속 메시 타이어를 고무 타이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달표면에서는 1/6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금속 타이어도 지상에서는 2명이 타면 가라앉아 버려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이 로버는 배터리 구동으로 지상을 최대시속 약 3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은 중앙에 있는 레버 1개로 전진·후퇴·좌우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큐리 우주 캡슐(미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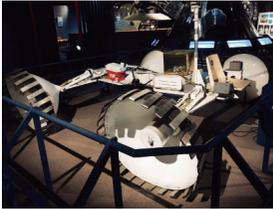
이 우주선은 미국이 개발한 1인승용 캡슐로, 미합중국에서는 최초의 유인비행용 우주선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캡슐을 쏘아 올린 로켓은 머큐리레드스톤형과 타이탄형이며, 모두 대륙간 탄도탄(IRBM) 등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캡슐 외벽의 「싱글」이라 부르는 내열용 실드는 실제로 사용된 형태 그대로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내부도 당시의 스위치와 미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바이벌 키트까지 오리지널 그대로 충실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보스토크 귀환용 우주 캡슐(구 소련제)



이 보스토크 캡슐은 실제로 비행을 하여 우주에서 귀환한 실물입니다. 대기권으로 재돌입할 때의 마찰로 인해 표면이 그늘져 있습니다. 귀환용으로 1인승이며, 기체선과 분리되어 대기권으로 재돌입합니다. 고도 약 6,000m에서 이 캡슐로부터 비행사가 튀어나와 캡슐과 분리됩니다. 캡슐과 우주비행사는 각각 낙산으로 지상으로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나/마즈 로버(미국제)



이 로버는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화성과 달 표면의 주행을 상정하여 그라만사에게 제작을 위탁한 실험용 프로토타입 차로, 실험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실험이 이루어진 실물입니다. NASA의 특별 협력으로 존슨우주센터에서 하쿠이시로 영구 대여되어 있습니다.

모르니아 1호 통신위성(구 소련제)



이 모르니아 통신위성은 구 소련의 광대한 대륙 전 국토를 커버하기 위해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원격지점의 확보와 안정비행에 성공한 통신위성으로 「모르니아」란 「번개·지구 전보」를 의미하며, 특징은 본체 내부에 대형 자이로(gyro)를 탑재하여 안정화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통신위성은 모르니아 1호의 백업기입니다.

아폴로 사령선(CM)(미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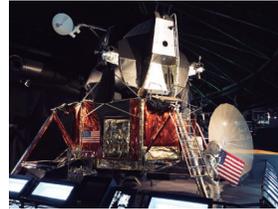
이 아폴로 사령선은 바닥부분의 직경 3.1m, 높이 3.23m, 무게 5.9t의 원추형이며 3인승. 내용적은 10입방미터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승용차 정도로, 평상시 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런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5개의 창이 있으며, 표면은 여기에 전시되어 있듯이 내열용 시트가 붙어 있고 대기권으로 재돌입할 때까지는 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령선은 가능한 한 실제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부품·소재를 사용하여 조립되어 있습니다.

보이저 혹성탐사선(미국제)



이 보이저 탐사선은 자력계측용 불 등 세부적으로는 실제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실제로는 10m 이상의 길이이지만, 이 보이저는 캐니스터에서 연결된 제1단계에서 잘려져 있습니다. 외부를 덮고 있는 커버 등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또한 본체 옆에 붙어 있는 금색으로 빛나는 원반형태의 판에는 이 보이저가 날아오른 지구의 위치, 태양계의 장소 등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레코드판으로 되어 있어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라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E.T.I(지구외 지적생명체)에 대한 메시지가 이 보이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월면 착륙선(미국제)



이 아폴로 월면 착륙선은 인류를 달 표면에 보낸 마지막 17호를 모델로 조립된 것입니다. 당시 선장은 유진 서난(Eugene Cernan)이며 당시 서난선장이 사용한 선내 활동복과 같은 것이 특별히 벽면 갤러리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영화 「아폴로 13」으로 유명해진 아폴로계획이지만, 이 계획은 당시 과학의 수준과 지혜를 모은 인류의 역사적인 위업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아폴로 월면 착륙선 외벽에 붙어 있는 금색·은색·동색으로 빛나는 시트는 실제로 사용된 소재와 동일한 소재입니다. 또한 사다리 아래에 장착되어 있는 명판에는 당시 닉슨대통령과 아폴로11호의 탑승자(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버즈 올드린)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계측기기를 연결하고 있는 케이블 코드는 아폴로계획에서 예비재료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여기에 전시함으로써 모두 소진되어 버린 마지막 케이블입니다.

루나24호 월면 착륙선(구 소련제)



1976년 8월 구 소련에 의해 실시된 마지막 월면탐사 「루나계획」. 이 계획에서 사용된 것이 루나24호입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루나24호는 실물에 대한 백업기기로, 고장 났을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달 표면에 착륙하여, 지구로부터의 원격제어로 좌측에 붙어있는 드릴로 달 표면에 구멍을 뚫고 토양을 채집한 다음, 그것을 두부에 있는 구형 캡슐에 밀봉하여 2단계로 다시 지구를 향해 발사하고, 최종적으로는 구형 캡슐만 지구로 돌아오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이킹 화성 착륙선(미국제)



여기에 전시하고 있는 바이킹 화성 착륙선은 몸체 및 많은 부품이 실험에 사용된 것과 그 시리얼넘버, 실 등 실제 제작회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킹 각부를 잘 보시면, 대기조성 분석장치에도 「TRW」사의 명판과 제품번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물관용 전시모델로 최대한 충실하게 오리지널을 재현한 국내유일의 박물관용 전시물입니다.